

보·도·자·료



# LG전선 광커플러, WDM소자 양산

- 초고속 정보통신 네트워크 핵심 부품
- 본격적인 광소자 사업 진출 계획

LG전선(代表 權炆久)이 국내 업계로는 처음으로 광커플러와 WDM소자를 개발, 이 달말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차세대 광통신의 핵심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 광커플러(Optical Coupler)와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 파장분할 다중화 장치)소자는 광섬유에 입력된 신호와 파장신호를 각각 분리 또는 통합하는 것으로 광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광커플러와 WDM 소자는 CATV망의 광신호분배, LAN에

서의 광신호전송, 광섬유 증폭기(EDRA)의 출력안정, 光線路의 유지·보수시스템 등에 사용되며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2

단계가 시작되는 1998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LG전선이 이번에 개발한 광커플러와 WDM소자는 광 부품의 최대 과제였던 신호 왜곡과 손실을 최소화 했으며 광섬유 응용인장법을 사용해 광섬유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LG전선으로서는 저가격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광통신연구소를 두고

그동안 3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지난 7월 광커플러와 WDM소자 시제품을 출시한 바 있는 LG전선은 이 달말부터 양산을 시작해 98년 20,000개, 오는 2000년까지는 연간 50,000개의 생산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그동안 광섬유와 광커넥터만 생산해 오던 LG전선은 이번 광소자 개발과 함께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핵심 부품인 광송수신 모듈, 도파로형(Waveguide type) 수동소자 등 본격적인 광소자 부품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